

#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기술개발 수입자재 대체 국산상토이용

김은주 원예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전국의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매년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1,800ha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빠르면 올해 6월 미국산 블루베리 생과가 수입될 수 있는 국내 시장 여건에서도 블루베리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블루베리 생산비 상승요인

블루베리 개원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묘목 값이 비싸고, 까다로운 토양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피트모스가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어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유기물 공급원인 피트모스는 개별농가에서는 쉽게 구하기도 어려워 국내 블루베리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 따라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수입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 유기물과 상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블루베리 생육에 적합하였으며 실제 노지, 시설 등 재배방식 및 품종을 달리하여 시험한 결과에서도 충분히 이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블루베리 정식 시 사용되는 피트모스량은 묘목 1주당 20ℓ 정도인데 국내산 수도용 상토 10ℓ를 묘목 식재구덩이에 피트모스 10ℓ와 5:5로 혼합하여 넣거나 그 이상의 혼합비율 또는 수도용 상토 단용 20ℓ만 넣은 후 묘목을 심었다. 이후 수체 생육이 양호하고 과실 수확량이 23~26% 증수되어 수입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블루베리 개원에 소요되는 피트모스 구입비용을 10a당 100만원으로 계산할 때 국내산 수도용 상토로 대체할 시 약 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규 블루베리 재배포장 500ha를 조성한다면 약 50억원의 수입비용이 절감되는 결과이다. 현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업현장에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블루베리 생산지인 전북 순창에 종합기술을 투여한 시범포장을 조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㉞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2년 5월호)

## 수입 피트모스 대체 국내산 수도용 상토 선발

블루베리는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산성토양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건조와 과습에도 약해 세심한 토양관리가 필요한 과수이다. 이번에 선발한 국내산 수도용 상토는 pH가 4.2~5.2를 나타내고 유기물 함량이 15%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 농가실증 시험포



▲ 노지 용기재배



▲ 시설 내 성토 선발시험